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주요 강단 - 마태복음

분노함의 위험성 (마 5:21-26)

The Dangerousness of Wrath (Matt. 5:21-26)

본문을 보면 “너희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의 말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1, 27, 31, 33, 38, 43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한 목적과 정신이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여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text, we can see the pattern of phrases,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But I tell you that.” This continually repeats in v. 21, 27, 31, 33, 38, and 43. In spite of clear objectives and spirit contained in the Law, Pharisees interpreted the Law as they liked and made big mistakes.

Thereupon, in order to let them know the real meaning of the Law, Jesus explains again, like the above mentioned pattern of the phrase,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But I tell you that.”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위와 같은 패턴으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겠다’고 하시며 다시금 율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1. Do not murder

Jesus first of all chose a subject concerning murder in order to explain the real objective and spirit of the commandment.

1.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계명의 진정한 목적과 정신을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살인에 관한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21절).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살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 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You have heard that it was to the people long ago, ‘Do not murder, and anyone who murders will be subject to judgment’ ” (v. 21).

Why don't we murder? According to Pharisees' logic, murder is the object of God's judgment. However, the reason why we don't murder is because God's holy image is contained in all people. That is to say, God commands us not to murder to keep our life precious in God's image.

2. 무엇이 살인인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22절).

여기 ‘심판’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면 그것 또한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수롭지 않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 What is murder?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Again,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 ‘Raca’ is answerable to the Sanhedrin. But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v. 22).

Here “judgment” means that someone condemns a murderer. Accordingly, if we get angry at, or lose our temper towards anyone, it also causes us to commit murder. Taking a step forward, it means that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 ‘Raca’ is answerable to the Sanhedrin.

We insignificantly get angry at and lose our temper to someone a few times in a day. Like this, Jesus says by getting angry and losing our temper towards someone is the same thing as committing actual murder.

3.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이유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으므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욕을 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욕을 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씨앗입니다. 부지중에 생긴 살인을 제외하고 모든 살인은 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가인이 분노했을 때 살인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3. The reason why we don't have to get angry

Because human beings are made in God's image, their very existence is very precious. If we are angry at, curse, and despise someone, it is just the same as being angry at, cursing, and despising God who made us. Anger is the seed of murder. All murders come from anger except a murder that happens unconsciously. God received Abel's sacrifice but not Cain's. At that time when Cain was angry at God, the murder already occurred.

My beloved Christians!

Jesus says that we must first of all be at peace with brothers before we worship. Our life is a relationship. If we fail in the relationship, we don't fail in one part of life but all of our life.

All of us should be released from the bondage of anger and keep all people precious in our hearts. By showing the appearance of a beautiful and true worshipper,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wi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의 한 부분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부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노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아름답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설날 연휴 - 성경통독사경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1월24일(화) 오전8시-오후5시 / 웨스트민스터홀, 범위: 사도행전~요한계시록

우리 교회는 설날 연휴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입니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웨스트민스터홀에서 24일(화) 오전8시 개회예배를 드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는다. 신앙생활이 연약해지기 쉬운 명절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회비는 1만원, 사무국에서 접수 받는다.



성경통독 사경회 전경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목사·장로 기도회

1월31일(화) 오후7시 - 서울교회 본당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1월31일(화) 오후7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한국장로교총회설립100주년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8-19)는 말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한국장로교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아 한 교단 다체제 연합을 이루고, 한국교계와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며 장로교 지도자들인 목사, 장로 120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 날 설교는 우리 교회 이종운 원로목사가 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비전 2020 후원자의 밤 개최

오늘 찬양예배 후 / 801호

서울교회 비전 2020 후원자의 밤이 오늘 찬양예배 후 801호에서 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육군23사단, 3사단, 해병대교육훈련단의 장병들과 육사, 해사, 간호사관학교 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을 복음화하는 원대한 비전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0 군선교의 밤 참석자들

2012년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수련회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는 빛! 나는 소금! 착한 행동을 하나님께!	최인애 전도사
유치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빛!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소금과 빛!	김안성 목사
초등부	2.26(주)~28(화)	서울교회	선학과 집중&변화와 유지-올파라이징하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청년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2.20(월)~21(화)	이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디아스포라부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고등부	1.27(금)~1.28(토)	이가페타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박노철 목사 / 이종진 목사
사랑부	2.12(주일)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대학부	2.2(목)~4(토)	이가페타운	ppp-Praise, pray, play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박노철 목사 / 허승일 전도사
청년1부	2.29(수)~3.1(목)	이가페타운		박노철 목사 / 박진아 목사
청년2부	3.1(목)~3.3(토)	이가페타운		박노철 목사 / 오세광 목사
디아스포라	1.27(금)~28(토)	이가페타운		박노철 목사 / 박광일 목사
에바다	2.25(토)	서울교회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1(토)	서울교회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2.24(금)~25(토)	이가페타운		박노철 목사 / 스티븐 마티놀리치 목사
레인보우영어교실	2.3(금)~4(토)	통일교육원		박광일 목사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3]

(문 29)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간주되었으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닌 13지파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 :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창48:5)라고 야곱이 말하므로 이 두 아들은 야곱의 손자가 아닌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 48:22에서 야곱의 11아들에게 각각 준 분깃보다 배의 분깃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분깃은 없으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분깃을 받음으로 에브라임은 요셉의 A지파와 므낫세는 요셉의 B지파처럼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다른 모든 지파의 영적 번영을 돌보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48개 성으로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나안 땅은 실제로 12자손에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11지파에게 분배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지파의 분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자손에게 분깃을 준 것이 아니고 12지파에게 나누어주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각각 받은 분깃의 배를 그 아들들을 통해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죽게 된 것을 구원하고 나일 강변에 피난처를 제공해 준 놀라운 봉사를 한 고로 요셉의 가정에는 배의 분깃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다른 지파처럼 각각 분깃을 얻었던 것입니다.

창 49장에는 야곱이 임종 시 12지파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적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셉 자손이 한 지파로 간주되고 레위가 첨가되어 있으나, 민수기 2장에서는 레위가 제거되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별도로 취급되고 있으며, 모세가 쓴 신명기 33장에서는 레위 대신 시므온이 제거되고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 12지파(창49:28)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계속)

성경통독자 시상 -찬양예배 시

4독 : 6교구 서영세
2독 : 9교구 김은애, 13교구 장성자
1독 : 3교구 배재송, 임분도, 6교구 양지훈, 대학부 이하나

장년부 성경공부 개강 !

15일(주일)부터 매 주일 1부 예배 후 본당 2층에서 10시부터 장년부 성경공부가 개강됩니다. 장신대 김철홍 목사님의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주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용합시다!**

성도 여러분!
주일 1·2·3부 예배 전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합니다.

2012 일꾼들

2012,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내가 여기 있다



남태순 권사(제1권사회 회장)

부족한 저를 제1권사회 회장이란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한 이사가처럼 올 한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20년간 서울교회에 어려운 시험과 고난도 주셨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으시고 또 부어주셨습니다.

니다. 먼저는 이종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복을 주셨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아가페 타운도 주셨습니다. 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터 위에 더욱더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의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기도와 봉사로 모범을 보이신 살롬 권사님들을 존경하며 그 수고와 땀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2권사회와 더불어 연합하며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제1권사회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2012년, 184명의 제1권사회원들이 모두 건강하여 더욱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김선영 권사(제2권사회 회장)

모태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저에게 불현듯 권사회장직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명령이었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순종이었기에 연합함 가운데서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권사회장직은 가장 먼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012년을 통해 위, 아래, 주위를 살펴보며 지난 날을 되짚어 볼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동역자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권사회장직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135명의 제2권사회원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과 같이 제2권사회원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해마다 제2권사회는 봄 가을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 세미나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일은 물론이거니와 대내외적으로 병약한 자들과 위도가 필요한 이들을 힘써 찾아 저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 할 때는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 제2권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최규초 집사(제1스데반회 회장)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 또한 과거 20년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한 기초석 위에 한 페이지의 역사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노철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하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박노철 목사님은 육체의 중심인

허리처럼 교회 섬김의 중추적 역할을 스데반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 교회 섬김의 중직자로 귀한 직임을 받은 스데반회는 겸손히 교회에 순종하며 스데반회 회원 모두가 섬김의 중심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각종 섬김과 모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의 덕으로 서로 존귀히 여기며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차게 달려갈 길을 달려갑시다.

겸손과 행하는 믿음으로만 섬기겠습니다



이동만 집사(제2스데반회 회장)

여호와 삼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2012년 제2스데반회 133분의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섬기며 헌신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머리숙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제2스데반회는 주님의 사명을 죽음으로 맞서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함과 행하는 믿음으로 서울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교제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생활화하는 신행일치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2스데반 회원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회원들간의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함으로 서울교회를 위한 모든 일에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다하는 착하고 선한 일꾼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는 서울교회의 사명과 함께, 힘쓰고 노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2년이 될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와 같은 충성을 다짐합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헌신의 서원에 흔들림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격려해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신년시

새해 기도

저마다 간절히 소망을 담아 보는 아침
큰 해를 받들어
바다로 산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더운 김이
펄펄 끓는 선홍빛 희망을 풀어놓는다.
떠오르는 빛이 이 땅 어느 곳이나
비추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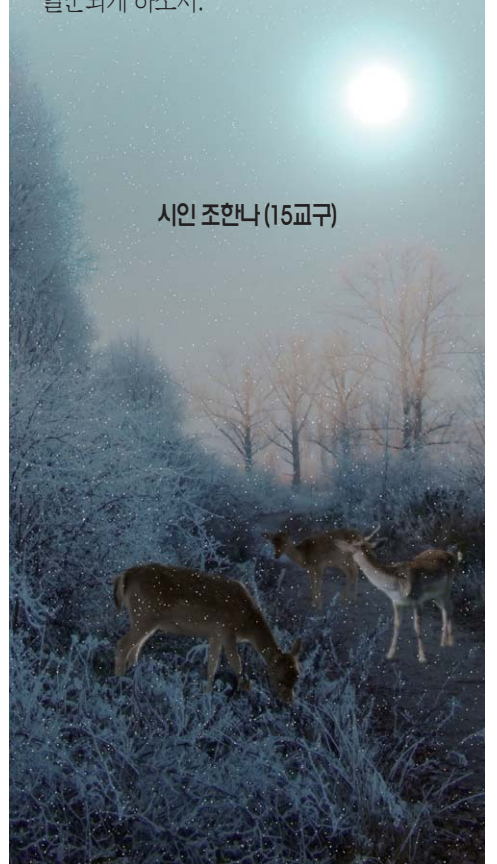
삶의 주머니 속에 결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새해엔 심령 깊이
성령의 심지를 돌위
새 불을 켜게 하소서

꽃 앞에 서듯이
누구에게나 미소를 나눠 주게 하소서

등불 들고 꽃씨를 심는
일꾼되게 하소서.

시인 조한나(15교구)





경륜과 지혜를 힘입어

이강인 집사(소망부 부장)

그동안 장년 5부였던 성경공부반이 소망부로 그 명칭을 바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소망부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성경공부 모임으로 1부 예배 후 603호에서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나이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합니다. 소망부는 서명철 목사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 영성을 더하고, 조별로 모여 다시금 풍부한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GBS 시간을 가지

며 더불어 교제와 도고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올해는 분기별로 성경퀴즈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망부는 교회의 가장 어르신들의 모임으로서 나아가 주는 경륜과 지혜를 힘입어 교회와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이 시대의 버팀목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안에 거하며 2012년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2012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1월 18일(수) / 수여식: 2월 5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이영기 장로)는 2012년 1학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계속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 특기자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

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1월18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명단

김선태(김옥순) 박종권(김희경) 제1스데반회 이영기(이영숙) 이준호(이은희) 노문환(장정화) 임흥수(허옥봉) 임상현 하인선(남태순) 제1권사회 박정자 오정수(이영희) 오은경(김명옥) 김주현(권은주) 이갑진 이훈 전광영(김인숙) 원용규(박이선) 이종욱(이재경) 최성을 권소희 김상식(이순례) 안홍희(전화진) 임광호(김정미) 김종우 임종식(신선주) 박권준 주동재(김동진) 정성자(이상욱) 이만희(신순재) 김만집(이영자) 이상호 신용식(김신영) 권명희 이재원(서현정) 김광민(박민숙) 정수진 주화인 김혜수(윤운) 이동만 이승언(윤정일) 박정선 유경희 전수자 최광성 황병석 유동훈 이영미(류동식) 노진아 임종태 김필임(김효택) 정동화(김복순) 이민화 육순자 김선자 공민호 5-1.5-2연합다락방 양은정(이재봉(이경구) 박희실(이은지) 이원일(장기숙) 박경주 최주하 최무진 이윤미 정운재 정지에 장해라 장해운 류한희 류한민 이호민 이형진 이지은 허경화 강홍래 김철진(노의정) 주차홍(윤계진) 방계운(박현미) 김광욱 이관규(이순영) 노병희(방덕자) 송재현(선순례) 강수남(송경옥) 이순형 나미용 이종일 양옥자(김진한) 김형상(최금숙) 보배여전도회 원용범 오민세(임경희) 박혜선1 박영실 김가순 장명순 김지혁 김선혁 김복녀 최봉애 김진희 김용환 강낙훈(심상희) 송행희 우승희 이지동 서양지 3-7다락방 최원석(박길희) 김영비 강요셉(강찬양) 진준식(진원식) (다음 주 계속)

비전2020 후원자 명단

12-1다락방 1-9다락방 강낙훈 강애자 강영순1 강장숙 강홍래 권명희 권소희 김가순 김관홍 김광민(박민숙) 김대웅 김명옥(오은경) 김상태(김숙자) 김숙자 김연욱 김옥순 김용환 김윤섭(박명석) 김인숙 김주현 김진달 김진희 김형배 김형상(최금숙) 김혜수(윤운) 김희진 나기태 나미용 나상민 노문환 노영환(홍은경) 노제현 민정자 박경주 박인규 박정선 박정섭 박정임 박정자 박종권(김희경) 방계운(박현미) 보배여전도회 살롬권사회 서영세 선병욱 손경화 손명근 손재결 손태기 송행희 신용식 안동화(전화진) 안선희 양옥자 양은희 오민세(임경희) 오영자 오유식 오정수 우승희 우종암 원용규(박이선) 유선희 육순자 윤찬오 이광열(엄금순) 이덕민 이동만 이명재(김현숙) 이민화 이민희(신순재) 이부자 이삭선교회 이상욱(장성자) 이상호2 이상애 이순례 이영기(이영숙) 이영욱(최금미) 이원일(장기숙) 이윤재 이준수 이준호(이은희) 이지은 이재봉(이경구) 이홍욱 이훈 임광우(최미희) 임광호(김정미) 임병우(임혜림) 임상현 임윤자 임종태 임흥수 장덕(임인자) 장인원 전용순 전용식 전원순 전인화 정동화(김복순) 정미자 정복순 정유정 제1권사회 조정옥 주동재 진승근(이혜선) 최광성 최무순 최원석(박길희) 최필선 하인선(남태순) 한은경 허경화 현다영 홍재식 황병석 황선희 (다음 주 계속)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비전2020 후원자의 밤'에 참가하는 카운터테너 정시만 상병(132 공병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미국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카운터테너로 미국, 독일 등의 국제콩쿨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뉴욕과 유럽 등지에서 연주한 경력이 있다. 오늘은 "축복하노라(신상우곡)", "거룩한 성(Stephen Adams곡)" 등 세곡을 시운 찬양대 피아니스트 박승기 성도의 반주로 찬양드린다.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명단

최원석(박길희) 김진하(전현주) 장운기(노애리) 박지윤 우승희 김형상(최금숙) 박진희4 정길영 나미용 강낙훈(심상희) 김용환 김진희 이준호3(이은희) 박지윤 은기장(김경숙) 양춘경(이인숙) 김철진(노의정) 이명구(문옥일) 김은정 이지동 임명숙 김원중(이갑연) 김동봉 조영기 김은경 김정에 최형열(김찬진) 박형수 제1권사회 살롬권사회 제2스데반회 발립남선교회 안드레남선교회 베드로남선교회 바울남선교회 엘리야남선교회 모세남선교회 이삭남선교회 도르가여전도회 루디아여전도회 보배여전도회 마리아여전도회 에스더여전도회 한나여전도회 리브가여전도회 사라여전도회 이우리 조순엽 김광민(박민숙) 김권집(왕경애) 강수남(송경옥) 이순형 이관규 김재중(김유경) 노병희(방덕자) 송재현(선순례) 김복녀 아브라함남선교회 이강진(이신영) 김장배 윤혜련(김관규) 이복규(한명순) 이현수 조 희 최향봉 이남성(최영란) 문성주 이 호 하극수(조영자) 윤동수 유성택 강홍래 방계운(박현미) (다음 주 계속)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5일(주) 프놈펜 한인교회 주일예배 설교한다. 16일(월)-19일(목) PAUA(범아시아, 아프리카대학협의회) 5차대회 집회인도 및 특강을 한다. 21일(토)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전시회: 전광영 집사(15교구)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대학교 미술관(1월17일-3월2일)
- 주간식당 봉사: 제2스데반회(1.15) 제1권사회(1.22)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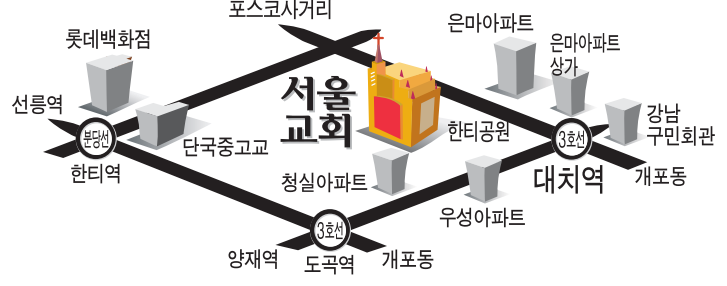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 농어촌 100교회 후원, 그리고 비전 2020 후원이 잘 이뤄져서 선교의 비전이 힘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2.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 설날 연휴 중 1/24일(화)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있는 성경통독사경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